

“우리 삶은, 달이 차고 기우는 것과 같아”

‘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신경숙 지음



작가 신경숙이 새 소설집 ‘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펴냈다. 이번에는 기존에 써왔던 소설문법과 판이하게 다르다. 우선 일반적인 단편보다 분량이 짧다. 소설의 어조나 언어도 색깔이 바뀌었다. 예전의 소설이 활기있는 언어로 인물의 심리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패러독스나 농담으로 삶의 모습을 경쾌하게 그려낸다. 얼핏 작가의 변화에 대한 압박이 읽혀지는 대목이다. 작가는 오래 전 밤하늘을 바라보다 “문득 달에게 우리의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짧은 형식의 글을 쓰고 싶어졌다”고 고백한다. 그 ‘문득’은

어느 ‘한순간’ 소설로 형상화된다. “새벽의 한순간, 여행에서의 한순간, 일상을 꾸러나가는 한순간, 책을 읽는 한순간, 당신 혹은 우리가 만났던 한순간들”

그 순간, 순간이 모여 모두 26편의 짧은 소설로 탄생했다. 작품에서 달은 초승달, 반달, 보름달, 그믐달로 서사를 확장하는 모티프로 전이된다.

가벼운 이야기라고 해서 마냥 웃음을 자극하지는 않는다. 그 코드가 웃음이든 울음이든 소설에는 잔잔한 감동이 녹아 있다. 자칫 일상에서 놓쳐버릴 수 있는 추억의 소중함이나 가족에 등을 다룬다.

‘코팍지 이야기’는 주위에서 한번쯤 봤음직한 에피소드가 소설로 형상화된 케이스다. 누나와 내(화자) 친구가 결혼해 친구가 매형이 된다. 그 친구는 누나가 없다. 어느 날 친구가 집으로 놀러왔는데 내가 스스럼없이 코팍지를 누나의 무릎에 댄다. 친구는 그 모습을 보고 누나가 너무 예뻐 보인 나머지 결혼을 결심한다. 내 기억에 없는 소소한 추억이, 사실은 누나와 친구가 부부의 연을 맺게 되는 기폭제로 작용했다는 거다.

‘풍경’은 어머니의 사랑이 짧은 글로 형상화된 작품이다. 서울 사는 딸 집을 찾아오는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다. 할머니는 딸에게 주려고 앉은뱅

이 나비장을 보자기에 싸서 머리에 이고 지하철 계단을 오른다. 다른 할머니가 그 옆을 지나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 늙어서 무슨 짐을 그렇게 들고 다니시유?” “달네 좀 갖다주려구” “가져가라 하든지 택시를 타든지 해알 거 아니유!” “가져가라 하기가 미안하구, 꽤 끼치는 거 같구. 택시비가 많이 나와서” “미안하기는 뭐가 미안하유. 난 할매 같은 사람 보면 아주 화가 나. 아주 속이 터진다구. 왜 그렇게 사슈. 제 몸 하나도 주체 못하면서” “사람은 다 살게 되어 있으니” “대개 보고 이거 들어다달라고 안 할 테니 걱정 마시유”

어찌보면 지극히 사소한 이야기다. 자식에게 줄 무거운 짐을 지고 계단을 오르는 할머니는, 다름 아닌 우리의 자화상이다. 소소한 나머지 지나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삶이라는 의미다.

경쾌함과 발랄함 속에 깃든 페이스스가 오히려 진한 울림을 준다. 작가의 변신은 일단 성공한 듯 보인다. 불현듯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는 가요가 떠오른다면 다소 생뚱맞을까.

〈문학동네·1만2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환경과 생태, 바람직한 도시 재생의 모습

‘도시 어메니티와 생태’

우에타 가즈히로 외 지음



한 공간에 초점을 둔다. ‘환경’, ‘생태’를 키워드로 바람직한 도시 재생의 방향을 고찰한 것이다. 파괴하기는 쉬워도 복구하기는 어려운 게 환경이다. 어메니티가 자연자본이자 공공재로 환기, 확장되어야 할 이유다.

자연과 도시, 인간은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개체가 아니다. 선순환의 고리로 연계된 공동체적 존재다. 도시재생이 필요하고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재편되어야 하는 이유다.

우에타 가즈히로 교토대학 대학원 경제연구과 및 지구환경학당 교수 등 일본 도시계획 전문가 7명이 쓴 ‘어메니티와 에코로지’를 번역한 책이 나왔다.

‘도시 어메니티와 생태’로 명명된 이 책은 광주일보 윤현석 기자와 도시계획 관련학과 교수(조동범 전남대 조경학과, 노경수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이봉수 동강대 건축과 교수) 등이 번역을 맡았다.

책에는 단순한 도시재생이 아닌 환경을 살리는 선순

모두 8장으로 구성된 책은 도시와 자연자본·어메니티, 도시 신진대사, 지구환경문제와 도시, 환경자산관리와 도시경관 등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윤현석 기사는 “도시재생의 근간은 창조성이며 그 기반이 곧 문화와 역사, 자연이라는 것을 서둘러 인식하고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를 발굴하고, 키워고, 공감시킬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번역의 의미를 강조했다.

〈한울·2만2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꿈을 꾸는 사람들, 에메랄드 빛으로 빛나라

‘에메랄드 궁’

박향 지음



아라비아 공전을 본뜬 지붕은 외견상 찬란하게 빛나지만 이곳에 모여드는 인생은 그처럼 화려하지 않다. 모델 안주인 연희는 1실1주차 무인시스템, 수중안마기, 월풀욕조, 할인쿠폰, 마일리지카드 등 최신킷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이곳을 드나드는 이들의 주변부 삶이 바뀌지 않는 한 ‘에메랄드 궁’은 샴류 모델에 지나지 않는다.

1억원 고료 2013년 세계문학상 대상작 ‘에메랄드 궁’이 출간되었다. 그동안 ‘내가 결혼했다’(박현욱), ‘스타일’(백영옥), ‘내 심장을 쫓라’(정유정) 등 개성 넘치는 문제작을 발굴했던 세계문학상 올해 신작이다. 작가 박향은 1994년 부산일보 신춘문예에 ‘연대표 속의 전쟁’으로 등단했으며 그동안 부산소설문학상 등을 수상한 중견 문인이다.

대도시 외곽 허름한 모텔을 배경으로 이 시대 ‘번두리’ 인생들의 일상과 욕망이 사실적으로 그려진다. 그 이면에 드리워진 인물들의 도전과 좌절도 작가 특유의 깊이 있는 시선과 맛깔스러운 문장으로 생생하게 형상화된다.

작가는 “내 소설이 누군가에게 작은 울림이나 남길 수 있기를 바란다. 매년 연가만 피워올리는 글이 아니라 맑고 밝은 불길을 낼 수 있는 그런 소설을 쓰겠다”며 “세상을 좀더 낯날이 보고, 배우고, 사색하는 작가가 되겠다”는 각오를 밝힌다. 〈나무옆의자·1만2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행복 “마음을 채우고 살라”

‘땀’

김규성 지음



지난 2000년 현대시학으로 등단한 김규성 시인이 두 번째 산문집 ‘땀’을 펴냈다. ‘땀’은 ‘땀’과 ‘마음’의 합성어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함축돼 있다.

그는 몸 따로 마음 따로 살기 십상인 현대인에게 “마음을 채우고 살라”고 말한다. 유행하는 행복지침서들이 “마음을 비우라”고 외치는 것과 반대다. 대신에 마음의 공간을 겸손, 진실,

사랑, 은유, 절제, 순결 등으로 채우라는 의미다. 저자는 동서양의 책과 영화 그리고 미술을 징검다리 삼아 눈, 코, 혀, 몸, 맘 등 6개의 섬을 만들고, 각각 108개의 언어의 땀을 일구어 모두 108개의 마음지도도를 펼쳐놓는다. 그 지도를 따라 살다보면 혼자만의 행복이 아닌 더불어 사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저자는 나지막이 속삭인다. 〈문학동네·1만3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청년들에게 건네는 삶, 희망, 자유

‘세번째 개똥은...’

김경미 지음



“자유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났다. 말할 자격이 박탈당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존재케 하는 그 어떤 의미였다.”(김근태)

우리 시대의 자유인 13인이 청년들에게 건네는 나의 삶, 희망, 자유를 이야기 한 ‘세번째 개똥은 내가 먹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14인의 정치인이 말하는 나의 삶, 고난, 정치 이야기를 담은 ‘꿈을

못 넣어 속살다’가 출간됐다. 정치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 김경미가 ‘자유인’들의 인터뷰를 엮었다. 2011년 봄부터 2012년 10월까지 ‘프레시안’에 연재했던 인터뷰를 책의 형태에 맞게 고쳐 썼다. 책 속의 정치인들은 자신의 속내를 스스럼없이 드러냄으로써 사거리 한가운데서 방향을 정립하려고 군분투하는 인간적 면모를 보여준다. 〈후마니티스·각 1만5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우리 몸은 과학이고, 인문학이며, 사회학이다

‘불량 유전자는...’

강신의 지음



책의 주인공은 생로병사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몸이다. 그 몸을 가장 잘 설명하는 방법은 여전히 과학이다. 하지만 저자는 과학의 언어를 다시 인문학에 비추어본다. 생로병사의 경험적 현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이해하고, 다시 그것을 인문학의 가치를 통해 이해하려고 시도했다.

20세기는 유전자의 세기였다. 21세기에는 인간의 DNA 구조 전체가 밝혀졌다. 그리고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필두로 수많은 유전자 관련 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대부분이 사람보다는 유전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유전자의 눈이 아닌 사람의 몸으로 겪는 생로병사 이야기를 담은 ‘불량 유전자는 왜 살아남았을까?’가 출간됐다.

국내 최초의 인문학자 강신의 인제대 교수가 쓴 이 책은 이기적 유전자는 자신의 그릇인 사람을 조종해 이득을 취하지만, 불량 유전자는 어떤 이익이나 목적이 없이 사람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한다.

궁극적으로 이 책은 자연과학, 인문학, 사회학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될 때 우리 몸의 고통과 질병에 대한 진정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 몸은 과학이고, 인문학이며, 사회학이다.”

이 책은 팔막한 에세이 형식의 글 34편으로 구성된 누구나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

〈페이퍼로드·1만3500원〉

/김경원기자 kki@kwangju.co.kr

신간

▲왜 모두 미국에서 탄생했을까=구글, 애플, 페이스북, 트위터를 비롯해 아마존이나 이베이 같은 IT 업계의 주요 기업들은 모두 미국에서 태어났다. PC의 표준을 제시하고 웹을 만들었으며 SNS로 전 세계를 연결한 기업은 모두 미국 기업들이다. 이 책은 미국의 자유주의 문화, 그 중에서도 서부를 중심으로 꽃피웠던 힙피와 대항문화가 어떻게 지금의 실리콘밸리와 IT 기업들을 만들어 냈는지 설명하고 있다. 〈메디치·1만4000원〉

▲셋 클릭 건축을 품다=인문학적 감각과 절제된 심미성으로 공간과 건축, 인간의 풍경을 렌즈에 담은 건축사진가 김재경의 ‘셋 클릭 건축을 품다’가 출간됐다. 책은 25년 경력의 프로 건축사진가로서 저자가 만나는 다양한 건축의 얼굴들, 우리네 삶의 풍경과 이웃하고 있는 건축의 의미를 탐미한 문체로 그려내고 있다. 〈효형출판·1만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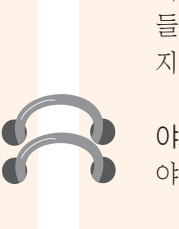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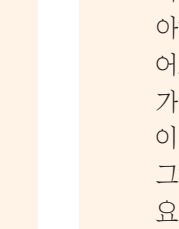
▲러시아 문학의 맛있는 코드=러시아 작가들이 음식을 또 다른 언어로 선택한 것은 음식과 그것을 먹는 행위의 놀라고도 흥미로운 속성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책은 푸시킨부터 솔제니친까지 러시아 문학의 거장들이 음식을 어떤 코드와 상징으로 끌어들이 자신의 문학 세계를 풍성하게 일궈냈는지, 그를 통해 궁극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는지에 대해 흥미진진하게 들려준다. 〈예담·1만8000원〉



▲로봇 다빈치, 꿈을 설계하다=로봇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공학자 데니스 흥, 한국명 흥원석 박사. 전 세계 로봇 연구의 메카로 각광받고 있는 로보틱스 소 로베라의 설립자다. 그는 생명을 구하는 화재 진압용, 재난 구조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며 로봇과 인간의 아름다운 공존과 따뜻한 기술을 고민하는 공학자다. 〈샘터·1만4000원〉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장국영=거짓말처럼 만우절에 세상을 등진 배우 장국영. 해마다 만우절이 되면 ‘거짓말’보다는 ‘장국영’을 떠올리게 된다. 그가 떠난 지 올해로 10년. 장국영이 남긴 제적과 함께한 시절을 더듬어 볼 때가 됐다. 우리나라에서 홍콩영화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잘 알고 있다는 ‘홍콩영화 통’ 주성철 기자가 장국영의 생애를 재조명했다. 〈흐름출판·1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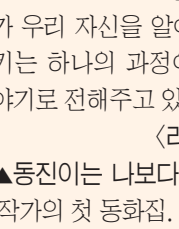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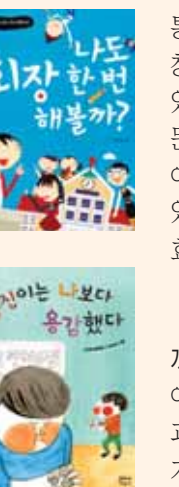
▲비자나무 숲=권여선의 네번째 소설집 ‘비자나무 숲’이 나왔다. 책 속의 7편의 단편소설에는 상실을 환기시키는 꿈, 단어, 추억들이 번갈아가며 등장한다. 짧고 긴 인생들 사이에서 지워지고마는 기억과 망각의 깊이를 통해 삶의 심연을 가늠케 하는 이야기들이다. 표제작 ‘끝내 가보지 못한 비자나무 숲’은 죽은 옛 연인 정우의 동생에게 사 전화가 오면서 시작된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한다며 제주도로 내려와줄 수 있는지 묻는 전화다. 〈문학과 지성사·1만2000원〉



▲두근두근 쪽=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위해 용기를 낼 줄 아는 슈퍼토끼 시몽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 아기토끼 시몽이 같은 한 친구 루를 좋아해요. 하지만 루는 마마두를 좋아해요. 시몽은 질투가 났어요. 그런 시몽에게 기회가 왔어요. 루에게 어려움을 다친 거예요. 마마두는 그런 루를 놀리며 멀리해요. 시몽은 상처받은 루의 마음을 보듬어 줬어요. 〈한울림어린이·1만원〉

▲안녕, 또 뵈! =“안녕”이라고 인사도 못했는데 이사를 가버린 친구 시시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그림 동화책이다. 친구에 대한 그리움, 작별, 우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안녕!”이라는 인사말 속에 숨겨진 비밀을 알려준다. 책을 읽은 어린이들은 “안녕”이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슬프지 않을 수 있다. 〈단비어린이·1만원〉

▲스토리텔링으로 만나는 우리문화유산 이야기=얼굴이 사라진 동령 이야기, 신발도둑 아광귀, 신들의 전쟁 등 자랑스러운 우리의 전



통과 유산을 바탕으로 한 창작 이야기 10편이 담겨 있다. 어렵고 딱딱한 전통 문화유산이라는 지식을 이야기 형식을 빌려 재미있게 전달하고 있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종이책·1만2000원〉

▲나도 화장 한번 해볼까?=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학교생활 중 맞는 여러 과업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며 과정을 즐기도록 돕는 실용 동화다. 화장 선거가 우리 자신을 알아가고 우리 마음을 성장시키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전해주고 있다. 〈리더스하우스·1만2000원〉

▲동심이는 나보다 용감했다=소설가 김경희 작가의 첫 동화집. 속도가 경쟁력이 되고 부와 능력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요즘, 그보다 더 가치있고 소중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것을 아이들 주변의 일상을 통해 들려준다. 가족과 친구와 더불어 함께할 때 내안의 고민과 걱정이 가벼워진다는 것을 전하고 있다. 〈문학과 지성사·8500원〉

어린이 책꽂이